

# 교대근무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장 내 괴롭힘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

오영미\*, 안민정\*\*

\*전남대학교병원 간호부, \*\*전남대학교 간호학과  
e-mail: anminjeong@gmail.com

## Impa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Workplace Bullying on Nursing Work Performance among Shift-work Nurses

Yeongmi Oh\*, Minjeong An\*\*

\*Dept. of Nursing,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,

\*\*College of Nursing, Chonnam National University

### 요약

**연구목적:** 교대근무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업무성과와 정적 및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, 간호업무성과의 관련 요인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.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, 직장 내 괴롭힘 및 간호업무성과의 정도 및 관계성을 파악하고, 간호전문직관과 직장 내 괴롭힘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.

**연구방법:** 본 연구는 상관성 조사연구이었으며, 연구의 대상자는 일 상급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교대근무 간호사 250명 이었다. 편의 표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, 수집된 자료는 SPSS 22.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.

**연구결과:**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26~29세가 109명(43.6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성별은 여성이 233명(93.2%)으로 많았다. 학력은 학사가 235명(94.0%), 결혼 상태는 미혼이 203명(81.2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 총 임상경력은 평균 5.24년이었으며, 근무부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100명(40.0%)으로 많았으며, 업무강도는 '상'이 127명(50.8%), '중'이 118명(47.2%) 순이었다.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총 임상경력( $B=0.17, p=.026$ ), 간호전문직관( $B=0.23, p<.001$ ), 직장 내 괴롭힘 경험( $B=0.13, p=.019$ ), 직장 내 괴롭힘 결과( $B=-0.16, p=.036$ )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,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( $\beta=0.38$ ). 설명력은 20.4%이었다( $F=7.59, p<.001, Adjusted R^2=.194$ ).

**결론:**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. 간호관리자는 간호업무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요인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.

**Key Words:** 간호전문직관, 간호사, 간호업무성과, 직장 내 괴롭힘

Table 1. Predictors on Nursing Work Performance among Shift-Work Nurses (N=250)

Variables	Model			
	B	$\beta$	t	p
(Constants)	34.83		6.51	<.001
Marital status, married (ref.: single)	-0.01	.00	-0.01	.996
Total working career	0.17	.18	2.25	.026
Nursing professionalism	0.23	.38	6.27	<.001
Workplace Bullying in Nursing-Type	0.13	.17	2.36	.019
Workplace Bullying in Nursing - Consequence	-0.16	-.16	-2.11	.036
F (p)		7.59 (<.001)		
R <sup>2</sup>		.224		
Adjusted R <sup>2</sup>		.204		